

# 문화전당 큰 역할 '교문위원장' 박주선 유력

### 설훈 의원과 경합... 야당 몫 국회 부의장 이석현

### 새누리 몫 8명 확정... 안행위원장 등 2곳 추가 공모

19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여당인 새누리당 몫의 국회 상임위원장 8명의 라인업도 확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국정조사계획서를 마무리 지은 뒤 상임위원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 몫인 국회 운영위원장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했다. 기획재정부위원장은 정희호 의원, 외교통상위원장에 유기준 의원, 국방위원장에 행정차 의원이 단수 후보로 확정됐다. 특별위원회인 정보위원장과 예산결산위

원장에는 김광림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각각 후보자로 결정됐다. 정무위원장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경선을 통해 정우택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확정됐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행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은 추가 공모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상임위원장을 확정 한 후, 곧바로 각 상임위원 간사를 선정하고 다음달 3일까지 개별 의원의 상임위 배치를 마칠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국정조사계획서를 마무리 지은 뒤 상임위원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국토교통위원장에

박기준 의원, 여성위원장에 김영주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김춘진 의원, 농해수위원장에 김우남 의원, 법사위원장에 이상민 의원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교육문화위원장을 놓고 박주선 의원과 설훈 의원이 경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위원장은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히 국회 교육문화위원장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누가 위원장을 맡느냐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정·관계를 중심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 광주를 배려한다면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주선 의원을 교육문화위원장에 선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부의장 선출대회를 열고 19대 국회 후반기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5선의 이석현 의원을 선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총 투표수 126표(재적의원 127명) 중 64표를 얻어 후보로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해 결선 투표 없이 최종 선출됐다. 이미경 의원은 46표로 2위를 기록했으며 김성곤 의원은 16표를 얻는데 그쳤다.

이석현 의원은 민주화추진협의회, 신민당, 평화민주당, 국민회의 등을 거친 '동교동계' 인사로 분류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 국회부의장은 여야가 한 명씩 나눠 갖는 것이 관례인 만큼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차기 부의장으로 확정된다. 이로써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은 정의화 의장, 정경준·이석현 부의장 체제로 구성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승원 칼럼

조그마한 목선에 올라탔을 때, 우리 몸무게로 인해 목선이 한 쪽으로 기울면 재빨리 반대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것은 우리 몸에 내재해 있는 균형감각 때문이다.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다.

배에 비유하자면 자기 나름의 평형수를 원초적으로 알맞게 채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외래 문물이나 사상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면 그것을 막고 거기에 맞설 수 있는 본래의 문물이나 사상을 강화하려는 균형감이 살아난다.

어떤 종교가 들어오면 기왕에 있던 전통 종교와 싸우게 되고 얼마쯤 뒤에는 서로 맞서 균형을 가지게 된다.

작용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난다. 건강한 사회는 외래의 힘과 본래 가지고 있는 힘이 균형을 가지도록 작용한다. 그렇지만 어린아이의 몸처럼 미숙한 사회는 균형감이 제대로 갖추

어린 가닥은 광주·전남의 지방정부이고 다른 한 가닥은 광주·전남의 민심과 그들의 정서일 터이다.

내가 생각하기로, 광주에서 열리는 5·18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못하게 막는 보훈처의 행위는 평형수를 채우지 않고 짐을 과도하게 실으려 하는 선장의 행위라고 같다.

그것은 보훈처 당국이 광주의 민심과 광주·전남적인 정서라는 평형수를 파내버리는 것이니까.

얼마 전에 카이스트의 한 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최고 명문대의 법대를 가라고 부추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요구가 부담이 된 여학생이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그 학생들은 세월호가 평형수를 파내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화물을 실은 까닭으로 전복되어 가라앉은 것처럼, 자기의 모든 역량을 통틀어(평형수를 파내고 과적하듯이) 성적을 올려야 하고, 외국어로 강의를 들어야 하고, 외

## 평형수 파내고 과적하고 다니는 사람들

어지지 않은 까닭으로 잘 넘어진다.

그렇듯이 덜 성숙한 정신세계도 균형감이 형성되지 않아 외래의 힘에 전도되기 마련이다.

성숙하지 못한 후진국적인 사회에도 균형감이 오묘하게 성숙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사회는 평형수를 파내고 과적한 배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다.

그러한 지도자는 우리들의 뼈아픈 세금으로 4대강 사업, 서울의 아라뱃길 같은 엉뚱한 사업을 하여 나라를 빚더미 속에 들어앉게 한다.

우리는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참사를 통해 평형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성숙하지 못한 후진국적인 사회에도 균형감이 오묘하게 성숙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사회는 평형수를 파내고 과적한 배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다.

그러한 지도자는 우리들의 뼈아픈 세금으로 4대강 사업, 서울의 아라뱃길 같은 엉뚱한 사업을 하여 나라를 빚더미 속에 들어앉게 한다.

우리는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참사를 통해 평형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성숙하지 못한 후진국적인 사회에도 균형감이 오묘하게 성숙되어 있지 않다. 그러한 사회는 평형수를 파내고 과적한 배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뽑는다.

국어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짐을 감당하지 못한 까닭으로 침몰해버린 것이다.

사람의 몸에는 보이지 않은 또 다른 평형수가 들어 있다. 그 평형수는 그 사람이 육체적인 짐과 정신적인 짐을 실었을 때 균형을 잡아주고 감당해주는 인격이고, 모든 법과 윤리적인 규정을 따르는 정직함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평형수를 파내고 과도한 짐을 싣고 있는 후진국형의 사람들이 아주 많다.

우리는, 나도 그러한 후진국형의 인물이 아닌지, 성난 얼굴로 자성해야 한다.

6월 4일 지방자치제 선거일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 선거판이 시끄럽다. 평형수를 모두 뺐어내고, 과도한 짐(공약)을 싣고 항로를 이탈하는 배들이 우리들의 눈을 어지럽게 하고 성가시게 한다.

이때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평형수를 가득 채우고 엄중한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흔들리는 위태로운 배들을 판별하고, 어떤 안전한 배를 탈 것인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소설가>

## 6·4 지방선거 현장

### 기초단체장·지방의원

#### 오형근 "동구 도심 재개발 고층화 행정 지원"

오형근 무소속 광주 동구청장 후보는 27일 "아시아문화전당과 무등산이 연계되는 동구 도심재개발과 관련해 고층화는 필수 과정"이라며 "스카이라인의 고층화를 위한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아시아문화전당과 무등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고층 위주의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양수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 부담률 10%로"

김양수 새정치민주연합 장성군수 후보는 "태풍과 폭설, AI, 구제역 등 각종 재해에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임할 수 있도록 내년 부터 농작물과 가축재해 보험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증액되는 연간 사업비 4억원은 전액 군비로 충당하겠다"며 "자담률 20%인 농작물재해보험은 10%로 낮추고 가축재해보험 자담률도 25%에서 10%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 신광조, 지속가능 생태서구 공약 발표

신광조 무소속 광주 서구청장 후보는 27일 "정당당당한 정책선거를 위한 정책승부 2번째 공약"으로 자전거이용 확대와 도심 내 생태농장 개설 등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서구' 공약을 발표했다. 신 후보는 이를 위해 공공자전거 확대 배치, 도심생태농장·생태캠핑장 조성, 서장일일 그린벨트 30만평해제, 친환경 녹색에너지 시범타운 조성 등을 약속했다.



#### 최형식 "사회적 기업 육성, 풀뿌리 경제 살릴 것"

최형식 새정치민주연합 담양군수 후보는 27일 "작목반과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을 적극 지원·육성해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풀뿌리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판매와 관광을 연계한 '에비 사회적 기업'도 집중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 송광운 "31사단 이전 복구 발전 마중물로"

송광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청장 후보는 27일 "광주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31사단 광주 외곽 이전'을 광주시와 함께 적극 추진해 복구 발전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밝혔다.



#### 임호경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제도 정비"

임호경 무소속 화순군수 후보는 27일 "화순지역의 어려운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의 아이들을 돌보며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있는 16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는 "국비와 도비·군비 등 재원을 확보해 지역아동센터가 교육복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민형배 "전통시장 편익시설·상설공연장 확대"

민형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는 지난 26일 비아 5 일장을 찾아 "전통시장은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경제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해주는 거점이며 향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문화자원이기도 한 '경제 이상의 경제'다"면서 "이용객과 상인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늘리고 상설 공연장을 마련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 채중순 "마을버스 확대 대중교통 불편 해소"

채중순 무소속 광주시의원(광산 3선거구) 후보는 27일 "신가, 수완, 하남, 임곡동을 오가는 시내버스의 노선 및 배차 시간이 불규칙해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높다"면서 "특히 임곡동은 시내버스가 73분에 1대씩 배치돼 대중교통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마을순환버스 확대 실시를 통해 대중교통 불편 지역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 최원일·박진표기자 cki@kwangju.co.kr



창사 62주년
知識을 넘어 智慧를 공유합니다.

## 성공비즈니스를 실현하는 소중한 자산

#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기 원우들은 지난 1년간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저희 원우들은 지난해 리더스아카데미 1기 명품강좌들을 수강하면서 갖게 된 새로운 시각, 그리고 각종 봉사과 연수활동을 통해 쌓아올린 원우들 간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원우회 회장 정인채(새천년총합건설 대표이사) 외 원우 일동**

KWANGJUILBO LEADERS ACADEMY